

보 도 해 명 자 료

(15. 5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예산없이 문닫는 'FTA활용지원센터' 관련 보도에
대한 해명 (15.5.20, 문화일보)

1. 보도 내용

☐ 예산없이 문닫는 FTA활용지원센터

- 경남 FTA활용지원센터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시행 중인 올해 'FTA 컨설팅' 사업이 조기 마감돼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☐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중 예산이 없어 문닫는 센터는 없음

-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들의 활동성과에 따라 사업별 배정예산이 조기소진되는 경우가 있어 산업부는 필요시 지역센터별 부진사업 재조정 및 잔여 예산 추가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경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일부 지원사업은 마감되었으나, FTA 상담 및 현장방문 컨설팅,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 컨설팅은 여전히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에 있음.

☐ 산업부는 이와는 별도로, '16년도 예산 요구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사업예산의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손경윤 과장(044-203-4150)